

실용음악대학 현황과 교과목 운영에 관한 연구 -부산소재 실용음악대학을 중심으로-

서정환

부경대학교 경영컨설팅협동과정

Research on the current status and curriculum management of colleges of applied music -with the focus on applied music departments based in Busan-

Jeong-Hwan Seo

Dept. of Management Consult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부산소재 실용음악대학들의 과목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교육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실용음악관련 학교들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부산소재 3개 학과의 커리큘럼을 분석한 결과 실용음악전공과 기존 음악학과의 커리큘럼은 일부 유사성이 있으나 차이점도 상당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부산의 경우 실용음악학과의 교육과목은 기존 순수음악학과의 영향아래에 있지만 나름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실용음악 교육기관들은 관련 커리큘럼을 세분화시키는 동시에 타 전공과 연계한 융합형 과목의 개설을 시도하고 교육환경의 향상을 도모해야한다. 이제 음악 내로 한정하는 기존의 논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경영, 미디어관련학과들과 연계해 음악기획이나 정책과 연관된 융합형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수업을 통해 뮤지션으로의 진로뿐 아니라 공연기획, 문화예술행정가 등으로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각 기관의 관계자들은 공론장에서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제 국내 실용음악학의 발전을 위한 근원적 성찰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research provides suggestions for development in colleges of applied music by studying their current curriculum management status and by analyzing the curricula. To that end, this research focuses on comparing cases from four-year universities and vocational colleges. Analysis of the curricula of three departments based in Busan reveal that the curricula of applied music departments bear some resemblance to those of fine music departments, but they also have significant differences. In Busan, applied music departments have curricula influenced by fine art, but they seek differentiation in whatever ways they can. Educational institutes for applied music should expand their curricula to be more on-point, and should seek interdisciplinary courses that embrace other majors, and that promote the improvement of educational environments. Nowadays, there is a need to break away from previous discourse that happens only within the boundaries of music. For example, applied music departments could join business or media departments in launching interdisciplinary courses on music production or policies. Students would benefit from such courses as they expand the scope of their career options to consider not only being a musician but also being producers or policymakers in the arts. People from various sectors could join public discussions to jointly seek ways to promote such collaboration. Now is the time for fundamental reflection on the development of applied music in Korea.

Keywords : Applied Music, Popular Music, Curriculum, Art Education, Art Management

*Corresponding Author : Jeong-Hwan Seo(Pukyong National University)

email: this_sea@naver.com

Received October 12, 2020

Revised November 30, 2020

Accepted February 5, 2021

Published February 28, 2021

1. 서론

실용음악이 대학에 도입된 것은 서양음악이나 한국음악에 비해 다소 지체되었지만 1988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서울예술전문대학(지금의 서울예술대학)에 실용음악과가 개설된 후 1990년대 후반부터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실용음악에 대한 학계의 지대한 관심을 연구자는 '실용음악현상'이라 지칭하는데 이러한 증가원인은 케이팝, 한류문화 확산에 따른 사회적 관심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아이돌, 걸그룹들이 생산하는 케이팝의 경제적 효과 역시 대학을 비롯한 연구, 교육기관들에게는 흥미로운 현상들로 보여진다. 최근 BTS현상이나 방송사들의 오디션프로그램에 대한 인기 역시 '실용음악현상'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21세기 이후 실용음악관련학과는 실용성을 특히 강조한 이 음악분야만의 장점으로 인해 더욱 많은 입시생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해당학교의 인지도와 입지조건이 좋은 경우 그 경쟁률은 폭발적이다. 2012년 실용음악 주요 10개 대학의 수시경쟁률을 살펴보면 105.99대 1로 나타났으며 2017년 한양대 수시에서 실용음악학과 보컬전공은 497.25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최근 2020년의 사례에서 서울예대 보컬(여)의 경우 217대 1, 동아방송대 보컬(여)은 126대 1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입학경쟁률은 사실 일반학과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 하에서 공급자들은 이 신설학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수도권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부산의 경우에도 적지 않은 대학에서 실용음악관련학과를 개설하였다. 실용음악현상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그 수가 증가하였지만 최근 학령인구감소로 인한 신입생유치의 어려움, 부산인구유출로 인한 산업전반의 침체, 그리고 졸업생들의 취업률 문제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일면 예견된 것이기도 하다. 수도권과 더불어 부산에서도 실용음악 교육기관이 급속히 증가해 왔지만 운영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최근 실용음악과를 보유한 동부산대학교의 폐교로 지역의 실용음악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부산은 제 2의 도시로 부울경의 인구는 수도권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하지만 실용음악관련연구는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중심으로 진행되어 부산을 중심으로 한 연구사례는 찾기 힘들다. 이에 연구자는 부산의 사례를 중심에 놓고 지역대학의 실태와 문제점을 공유하려한다.

연구자는 우선 부산소재 대학 및 학과들의 교육, 특히 커리큘럼과 관련한 부분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여러 문제들은 본질적으로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용음악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자들 역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부산소재 실용음악학과의 현황을 파악하고 커리큘럼분석을 통해 그것이 최근 실용음악교육에서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한다.

연구표본으로는 먼저 동아대와 부산예대의 경우를 비교분석하고 추가로 대동대의 경우를 살펴볼 것이다. 동아대와 부산예술대를 주요표본으로 선택한 이유는 두 경우 모두 20년 이상 부산에서 실용음악학과를 운영해오고 있는 지역의 대표적 사례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각각 4년제, 2년제 과정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대동대의 경우 최근 신설된 사례로 앞서 동아대와 부산예술대의 결과와 비교하는데 용이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라 생각한다.

연구자는 지역의 주요대학의 사례들을 살펴보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부산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실용음악교육기관들의 발전적인 교육운영을 위한 나름의 방안들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본론

2.1 부산의 실용음악교육기관 현황

실용음악은 1988년 당시 서울예전에 실용음악과가 개설되면서부터 학문의 제도권 안에 수용되었고 체계화된 교육을 지향하며 발전해왔다. 이후 실용음악을 전공하려는 학생들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관심으로 인해 대학에서 신규학과로 각광 받게 되었다. 이후 서울,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 중심으로 실용음악관련학과가 확산되고 있다.

참고로 '실용음악'이라는 학과명에 대한 이슈는 현재 다양한 학과명의 난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포스트모던, 뉴미디어음악, 컴퓨터음악, 대중음악, 생활음악, 방송음악, 케이팝, 뉴뮤직 등 관련 학과명은 20여 개에 이른다. 이러한 학과명에 대한 지적은 학계를 둘러싼 내·외부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편이다.[1] 이와 관련하여 과거 이정선 교수는 실용음악을 학문적인 방향보다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2] 역설적으로 실용음악학과명에 대한 이슈는 이 신설학과의 인기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듯 실용음악의 인기에 힘입어 관련전공을 개설한 학과가 매년 높은 입시 경쟁률을 기록하자 각 대학들은 유사 학과를 개설하게 되고 부산에서도 적지 않은 대학에서 실용음악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부산의 경우에는 대학과 실용음악학원 위주로 그 수가 증가하였다. 부산은 한때 실용음악학원이 200개가 넘을 정도로 관련분야가 인기를 얻기도 했다. 2020년 10월 기준으로 부산에는 25개의 대학캠퍼스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중 음악학과가 개설된 대학은 총 9개이며 이 가운데 실용음악학과 또는 실용음악전공이 있는 곳은 고신대, 동아대, 동의대, 대동대, 동주대, 부산예대 등 6곳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외 부산대, 경성대, 신라대에서 소수의 실용음악관련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나 이를 학과전체의 성향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1>는 부산의 음악대학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1. List of University & college in Busan

N	List	Department operation
1	Busan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music
2	Kyungsung University	school of music
3	Kosin University	Department of music: Applied music
4	Dong-A University	Department of music: Applied music
5	Dong-Eui University	Department of music: Applied music
6	Silla University	creative performing arts
7	Dae Dong College	New music
8	Dongju College	Applied music
9	Busan Arts College	Applied music

<표 1>에 의하면 부산에서 실용음악전공을 개설한 6개의 대학 중 4년제는 고신대, 동아대, 동의대로 3곳, 2~3년제는 대동대, 동주대, 부산예대로 동일하게 3곳이다. 고신대, 동아대, 동의대 모두 음악학과 내 실용음악전공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전문대학 중 대동대는 '뉴뮤직' 학과를, 동주대와 부산예대는 각각 '실용음악과'와 '실용음악학부'로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예대의 경우 실용음악과 내에 기악전공, 보컬전공, 창작전공, 국악전공 등 4개의 세부전공을 개설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1994년 부산예술대학을 시작으로 부산 지역에서 실용음악관련학과들의 등장은 지역의 산업, 문화예술 분야에서 기여한바가 적지 않다. 이들 학교들은

매년 평균 400여 명의 신입생을 유치하여 문화 인프라를 확장하였으며 부산시, 공공기관, 지역문화회관 등과 연계하여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을 비롯한 지역축제, 각종연주회, 기타문화행사 등 지역인을 위한 문화향유발전에 공헌해왔다. 최근 동부산대 실용음악과가 폐교되기 전까지 부산에서는 7개의 대학이 지역산업전반에서 나름 기여해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부산소재 실용음악관련대학들이 지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들은 여타실용음악관련대학들의 전반적인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표적으로 신입생 충원률, 중도탈락률, 취업률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부산지역 대부분의 음악대학들이 신입생유치에 심혈을 기울일 정도로 신입생충원율과 관련한 상황이 좋지 않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모든 대학들의 필연적인 과제이기도 하지만 특히 부산의 경우 매년 인구감소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의 인구감소폭을 살펴보면 2019년 부산에서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인구는 총 43만5058명이었으며 순유출은 2만 3354명으로 집계되었다.[3] 부산의 인구 유출현상은 1989년 이후 단 한해도 거르지 않고 30년째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2045년 부산의 추계인구는 274만 명까지 감소가 예상된다.

이런 상황 하에 최근 동부산대학교의 폐교는 지역 문화계에 충격을 주는 일대 사건으로 작용했다. 2020년 8월 폐교가 확정된 동부산대 사태가 지역예술인들에게 주는 충격은 하나의 대학이 없어지는 것 이상의 상당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동부산대가 실용음악과를 운영했던, 즉 예술대학을 보유한 지역의 문화적 거점역할을 일부 담당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실용음악과를 보유했던 지방대학의 폐교는 지역대학들에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부산의 학계와 지역문화예술현장의 분위기는 매우 침체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산의 각 대학들은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입생유치와 졸업생들의 취업률향상에 매진하고 있다. 각 대학의 운영진, 지자체 단체장, 그리고 지역의 문화예술단체기관장들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이제 지역의 대학문제는 지자체와 지역의 문화계가 함께 고민해야하는 지역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계열학과들의 경우 그 위기감의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부산의 실용음악학과들은 이러한 상황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2.2 부산의 실용음악학과 전공과목운영 현황

여는 글에서 언급했듯이 연구자는 실용음악대학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들이 본질적으로 교육에 관한 부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세부적으로는 강사들의 교육방법이나 교재, 기타 운용방법 등도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이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측정,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연구자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으로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고 이에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짚어볼 것이다. 여는 글에서 언급했듯이 먼저 동아대와 부산예술대의 커리큘럼을 예로 들고자 한다. 상기 대학은 모두 부산을 대표하는 실용음악 학과들로 각각 4년제와 2년제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래 표의 과목명들은 2020년 기준 각각의 대학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커리큘럼을 참고한 것으로 동아대의 경우처럼 각 학년별로 구분되어 있거나 부산예대, 대동대의 사례에서처럼 모든 전공과목을 통합하여 소개하는 경우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하 표에서 비교

Table 2. Curriculum of Dong-A university

Division	Subject name	RMKS	RMKS2
freshman	Music theory	C	T
	Sing & listening I, II	C	P
	Advanced private lesson I, II	C	P
	Basic stage rehearsal	A	P
	Advanced sage rehearsal	A	P
	Private lesson I,II	C	P
	Semi private lesson I,II	C	P
sophomore	Harmony I,II	C	T
	Practical performance class I,II	A	P
	Advanced private lesson I, II	C	P
	Major literature	C	T
	Music history	C	T
	Private lesson I,II	C	P
	Semi private lesson I,II	C	P
junior	Instrument practice I,II	C	P
	Music analysis I	C	T
	Advanced private lesson I, II	C	P
	Practical performance classIII,IV	A	P
	Music history	C	T
	Chorus guidance I, II	C	P
	Private lesson I,II	C	P
senior	instrument practice I,II	C	P
	Advanced private lesson I, II	C	P
	Practical performance classV, VI	A	P
	Korean tradition music	C	F
	Private lesson I,II	C	P

(RMKS)에는 기존의 음악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과목과 중복되는 성격의 수업들을 ‘공통(C)’으로, 실용음악학과 고유의 실용적인 수업은 ‘실용(A)’으로 표기하였다. 연구자의 분류법에 의해 〈I, II〉등으로 표기되어 기본, 고급과정으로 분류되는 전공실기, 컴퓨터음악 등의 수업은 하나의 과목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뮤지컬워크샵을 포함한 라이브 워크샵, 포트폴리오워크샵 등의 과목은 기존음악대학의 합주수업에 상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통(C)’으로 표기하였다. 반면 대동대학에서 진행되는 라스트콘서트워크샵은 현장조사를 통해 실용적 성격의 과목임을 확인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예외적으로 ‘실용(A)’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4년제 과정의 예로 동아대의 커리큘럼을 살펴보자. 연구자가 언급한 분류방법을 반영하여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4]

동아대의 음악학과 홈페이지에는 약 44개의 전공과목들이 소개되어 있다. 연구자는 앞서 언급한 분류법에 의해 이를 26개의 전공과목으로 정리하였다.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아대의 경우 공통과목성격의 비중이 상당히 높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상기 전공과목에서 스테이지리허설과 퍼포먼스클래스 과목은 전공실기나 워크샵 과목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실용적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어 비교란에 A로 분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용(A)의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

동아대의 사례는 기존 음악학과의 성격이 일부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동아대의 경우 1966년대부터 음악과로 운영, 2011년 별도의 실용음악학과로 분리하여 이후 다시 통합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지만 학과의 근본적인 성격은 기존의 서양음악학과에 가깝기 때문이다. 다수의 전공과목이 여타 서양음악학과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동아대는 음악학과 내에 실용음악전공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러한 부분에서 분명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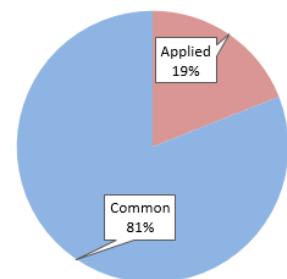


Fig. 1. Ratio of RMKS in Dong-A university

위의 <그림 1>에서 다시 확인 할 수 있듯이 과목성격에서 공통과 실용의 비율의 차이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공통의 비율이 실용의 4배가 넘는 기형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 홈페이지에 공지되지 않은 운영과목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같은 수치는 상기학과의 과목운영이 다소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동아대의 경우만으로 한정해 평가하는 것은 타당성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여타대학의 커리큘럼에 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는 글에서 언급한 부산예대 실용음악학부는 부산을 대표하는 실용음악학부로 부산에서 가장 긴 역사를 지니고 있다. 더불어 부산에서 가장 많은 재학생 수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다음 <표 3>은 부산예대 실용음악학부의 과목개설표로 앞서 동아대의 경우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논의는 특히 지역을 대표하는 4년제 대학과 2년제 전문대학의 비교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연구자의 분류방법을 참고하여 아래 표를 살펴보자. 부산예대의 경우 역시 전공실기, 실용음악화성학, 시창·청음 <I, II, III, IV> 등으로 표기된 과목은 하나의 과목으로 산정하였고 마스터클래스, 뮤지컬워크샵, 리사이틀 세미나 등의 과목은 공통으로 분류하였다. 분류작업 시 학과소속 구성원들과 면담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세밀한 분류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업한 결과 2020년 공시한 부산예대의 실용음악학부 전공과목의 커리큘럼분석은 아래와 같다.[5]

부산예대의 경우 전공과목의 공통비율은 동아대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과목의 비율은 46%로 상당하다. 이는 실용음악학부 내에 기악전공, 그리고 그 안에 클래식 기악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예대의 경우 실용음악학부 내에 순수음악전공이 포함되어 운영한다고 볼 수 있다. 동아대와는 반대의 운영사례인 것이다.

다음 <표 3>을 통해 부산예대의 경우 공통과목과 실용과목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공실기 외에도 전공심화연구, 뮤직앙상블 등의 수업을 통해 실기과목을 강화하고 있으며 라이브워크샵 등의 과목을 통해 다양한 전공생들이 교류할 수 있는 실습과목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3. Curriculum of Busan Arts College

Division	Subject name	RMKS	RMKS2
major study	Private lesson I, II, III, IV	C	P
	Jazz harmony I, II, III, IV	A	T
	Sing & listening	C	P
	Live workshop I, II, III, IV	C	P
	Contemporary music ensemble	A	P
	Computer music I, II	A	M
	Singer-song writer	A	M
	Class Jazz piano	A	P
	Intensive majors	C	P
	Music arranging	A	M
	Basic Instrument	C	P
	Majors study for graduation	C	F
	Band ensemble	A	P
	Utterance & breathe	C	P
	Music notation	C	M
	Theatre Dance	A	F
	Stage acting and self-expression	C	F
	Vocal enrichment	A	P
	Musical workshop	C	F
	Accompany practice for song	A	P
	Music and video utilization techniques	A	M
	Recital seminar	C	P
	Master class	C	P
	Graduation portfolio workshop	C	M
	Production of TV drama and CF music I	A	M
	Music synthesis	A	M
	Reharmonization techniques	A	T
	Mixing&Mastering technique	A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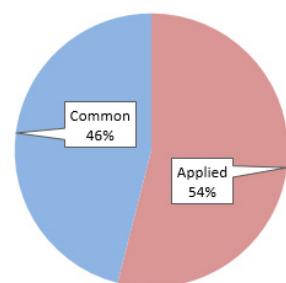


Fig. 2. Ratio of RMKS in Busan Arts College

동아대와 부산예대를 비교해보면 주요과목이 중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공실기, 부전공실기, 시창·청음, 재즈화성법, 워크샵 등 전공과목 가운데 주

요과목의 골격은 거의 같다.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의 여타 대학과 비교해도 거의 유사하다. 하지만 부산예대가 동아대와 차별되는 점은 상기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Table 4. Curriculum of Dae dong College

Division	Subject name	RMKS	RMKS2
major study	Sing & listening	C	P
	Popular music history	A	T
	Ensemble practice	A	P
	Dance	A	F
	Rhythm study	A	P
	Vocal playing	A	P
	Vocal technique	A	P
	Performance Class	A	P
	harmony	C	T
	Private lesson I, III	C	P
	Computer music	A	M
	Job coaching	C	F
	Guitar technique	A	P
	Recording	A	M
	Music business	C	F
	Sub private lesson II	C	P
	Song writing	A	T
	Performance method	A	P
	World Music	A	F
	Jazz counterpoint	A	T
	Jazz ensemble	A	P
	Capstone Design I, II	C	F
	Computer music(Cubase)	A	M
	MIDI	A	M
	Sub private lesson	C	M
	Advanced Sing & listening	C	P
	Performance & criticism	C	T
	Harmony I analysis, II, III, IV	A	T
	Jazz harmony	A	T
	Private lesson II, IV	C	P
	Reharmonization	A	T
	Fusion ensemble	A	P
	Piano performance	A	P
	Concert project	C	F
	Classic harmony	C	T
	Latin ensemble	A	F
	Recording, A&R	A	F
	Guitar technique	A	P
	Performance master	A	P
	harmonization	C	T
	Jazz Introduction	A	T
	Last concert Workshop	A	P

있듯이 전공선택과목에서 실용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게다가 드라마CF음악제작, 뮤직신디시스, 댄스 등 다양한 선택과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차별된다. 믹싱&마스트링 같은 과목은 매우 전문적인 이론과 실습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문음악인 양성을 지향하는 학과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동아대와 부산예대 모두 부산에서 20년 이상 운영해온 전통적인 사례로 부산에서 최근 개설된 학과를 추가하여 살펴볼 수 있다면 논의를 펼치는데 더 유용할 것이라 사료된다. 더불어 4년제와 2년제 과정의 단편적 분석에서 사례의 추가를 통해 좀 더 입체적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이유에서 대동대의 사례는 특별하다. 대동대는 부산에서 가장 최근에 실용음악관련학과를 개설한 사례로 국내최초로 학과명을 ‘뉴뮤직’으로 명명하여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다. 앞서 여타 대학의 경우와 동일하게 연구자의 분류법을 바탕으로 2020년 기준 대동대 뉴뮤직학과의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6]

제시된 바와 같이 대동대의 경우 공통성격과목의 비중은 실용에 비해 매우 낮다. 이는 서양음악전공이 아닌 ‘실용음악전문인을 양성’한다는 학과목표에 기인한 것이라 하다. 상기 <표 4>과 아래 <그림3>을 통해 실용성격의 과목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동대의 경우 앞서 제시한 동아대, 부산예대의 경우와 비교해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실용의 비중이 약 67%로 상당히 높다는 데 있다. 과목구성은 동아대와는 확연히 구분되며 부산예대와는 비교적 유사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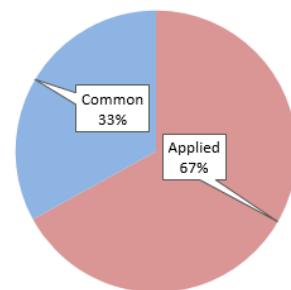


Fig. 3. Ratio of RMKS in Dae dong College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댄스, 진로코치, 뮤직비즈니스 같은 과목을 통해 진로와 관련한 현장 수업의 개설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캡스톤디자인’과목은 다른 대학과 구별되는 독특한 사례라 생각된다. 이러한 과목들은 학생중심의 수업으로 현장의 실제공연상황을 반영한 실습수업으로 볼 수 있다. 다

양한 세부전공의 학생들이 실제상황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일종의 열린 수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3 부산소재 실용음악대학의 커리큘럼 비교분석

연구자는 보다 체계적인 논의를 위해 동아대, 부산예대, 그리고 대동대의 실용음악 교육과정의 커리큘럼을 다음과 같이 〈이론과목(T), 실기과목(P), 미디어관련과목(M), 융합과목(F)〉으로 세분화시켜 분류해보았다. 이는 〈표 2〉, 〈표 3〉, 〈표 4〉의 비고2(RMAS2) 항목에 해당한다. 여기서 이론과목은 주로 이론에 특화된 수업을 말하며 실기과목은 실습위주의 연주과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전공실기과목이나 밴드양상블과목은 실습이 추가 되기 때문에 실기과목, 즉 P로 표기된다.

미디어관련과목은 컴퓨터음악 등 뉴미디어 기기를 이용하여 진행하는 수업을 모두 포함한다. 예를 들어 사보법의 경우 1980, 1990년대에는 종이악보를 이용해 수업이 진행되었으나 최근에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미디어관련과목에 속한다. 부산예대의 사례인 믹싱&마스터링테크닉 과목 역시 뉴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으로 진행되므로 미디어관련과목으로 분류한다. 영상음악관련 과목 역시 마찬가지다. 동일한 이유로 음반제작이나 드라마음악제작 등의 과목은 미디어, 즉 M으로 분류한다.

융합과목은 국악, 월드뮤직 등 전통음악이나 제3세계 음악을 포함한 다양한 수업내용을 포함한다. 나아가 진로선택에 특화된 진로코칭이나 댄스, 무대표현 등의 과목 역시 융합과목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인 라이브워크샵은 실기과목으로 분류되지만 뮤지컬워크샵은 음악에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융합되므로 융합, 즉 F로 표기한다. 따라서 뮤지컬워크샵이라는 하나의 과목만을 분석한다면 공통(C)이면서 융합형과목(F)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각 학교의 커리큘럼에 적용한 결과 아래와 같은 데이터가 도출되었다.

Table 5. Ratio of RMKS2

Division	Dong-A Univ	Busan Arts College	Dae dong College
Theory(Ratio)	23%	7%	26%
Practice(Ratio)	73%	47%	43%
Media(Ratio)	0%	32%	12%
Fusion(Ratio)	4%	14%	19%
Total	100	100	100

위의 〈표 5〉와 아래 〈그림 4〉에서 보면 전체 과목의 분포 중 연주실기 관련 교과목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용음악관련 전공에서 무엇보다 실기능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부산예대의 경우 보컬, 기악, 창작(실용작곡) 등으로 분류되는 실용음악학부 내에서도 보컬전공에서 이러한 실기과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먼저 보컬전공학생들이 여타전공에 비해 그 수가 많은 것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보컬관련 과목의 개설이 비교적 수월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이유로 보컬관련 과목이 다른 수업에 비해 최소한의 장비로 진행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컴퓨터음악 등 미디어 관련 과목들이 기본적인 기기가 수반되지 않으면 수업의 진행이 어려운 것과 차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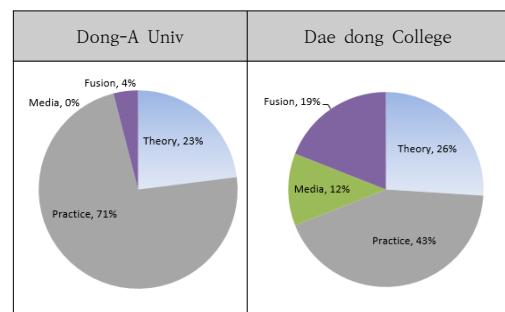


Fig. 4. Comparison between Dong-A University and Dae dong College

동아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미디어, 융합수업이 매우 부족한데 이는 실용음악전공생들의 비중을 염두에 두고 시급히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지 리허설, 퍼포먼스 클래스 등의 과목을 통해 나름 실용적 접근을 추구하려 노력하려는 의도가 보이지만 타 대학들과 비교하면 매우 부족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비해 대동대의 경우 전공과목들의 성격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학생들이 폭넓은 선택과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상기 3개 학과의 사례분석을 통해 동아대와, 대동대의 경우 실기 과목 외에 이론과목의 분포가 두 번째로 높다는 점도 알 수 있다. 이는 별도의 실습실이 아닌 일반 강의실에서 수업이 가능하고 공통적으로 여러 전공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론과목은 보컬을 포함하여 기악, 작곡 등 모든 학생들이 필수로 채택해야 하는 항목이 많았다. 주로 필수로 선택해야 하는 과

복군이 이론과목분류에 속한다.

컴퓨터음악 등을 포함한 미디어과목과 융합과목은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실용음악학과에서 이에 대한 과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부산예대의 경우 미디어과목이 두 번째로 높았다. 이는 최근 뉴미디어를 이용한 음악작업환경의 변화 등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기술의 발달로 인한 디지털 기기의 사용증가에 따른 이유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사진·미술·영상·건축 등 여타 예술분야와 다르지 않다. 컴퓨터의 발달이 해당 분야의 제작방식 변화를 촉진시켰으며 제작자들은 보다 쉽고 빠르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학생들도 이러한 과목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양음악학과에서도 뉴미디어를 활용한 과목들이 필수과목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융합과목의 경우 전체과목에서 비중은 높지 않았으나 점점 이러한 과목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향후 실용음악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학계뿐 아니라 음반제작현장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데 특히 국악이나 제3세계음악 등을 융합하는 시도는 주류음반시장에서도 최근 주목받고 있다. 또한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과목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취업률을 고려한 각 대학들의 방안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현재 실용음악관련 교육기관의 커리큘럼은 서양음악(클래식)학과와 상당수의 과목을 공유하면서도 서양음악의 정체성과는 다소 차별되는 보다 실용적인 과목명에 치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용적 학문’이라는 해당학과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서양음악학과에서 시행되는 대표적 이론과목인 (전통)화성학은 실용음악학과에서는 재즈화성학으로 대체된다. 실용음악관련 학과의 ‘대중음악사’나 ‘재즈음악사’ 수업은 서양음악학과의 ‘서양음악사’ 수업에 해당한다.

이렇듯 실용음악관련학과들이 실용적 성격의 과목을 지향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요구가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용음악관련학과 학생들 대부분이 기존의 서양음악이나 전통음악의 형식이 아닌 대중적인 스타일의 실용적 음악을 요구하고 있다. 현장에서 각 대학들은 이러한 경향에 힘입어 융합적인 교육방법에서 답을 찾으려는 듯 보인다. 최근 학계에서도 기존의 전통적 과목들을 대중음악분야와 결합하여 보다 다양한 시도로 이어지게 유도한다. 예를 들어 최근 오케스트라를 이용한

편곡기법 등은 대중음악뿐 아니라 영화음악이나 드라마 음악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대동대의 경우 대위법과목은 서양음악학과에서와는 달리 대중음악작품에 적용하여 컴퓨터음악의 가상악기 등과 연결되기도 하고 녹음실에서 녹음현장의 기법들에 연계하기도 한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여 최근 서양음악학과에서 컴퓨터음악, 영상음악 등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최근 음악학계에서는 실용음악관련학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업들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뉴미디어를 이용한 기술적 접근과 음악시장 현장의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분석된 결과에 의하면 현재 실용음악 전공을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과들은 기존의 음악대학, 소위 클래식 전공이 아닌 실용음악, 재즈, 생활음악 등으로 표기되는 대중음악 장르 학습자를 대상으로 관련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용적인 과목명들은 이러한 수요들의 요구를 대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는 글에서 언급한 ‘실용음악현상’의 원인은 대중문화의 발전과 확산,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정보의 빠른 수용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실용음악관련교육기관의 수는 교육시장에서의 관련 수요에 의해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 왔다. 또한 부산의 실용음악관련학과들은 실용음악 내에서도 다양한 전공분야로 세분화되고 있다. 이는 점점 다양하게 출현하는 관련 학과명과 세부전공들에 의해 증명된다.

3. 결론

본 연구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실용음악관련학과, 그 중에서도 부산소재 실용음악학과들의 커리큘럼 현황을 검토하고 그것이 지니는 함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용음악관련학과의 커리큘럼이 기존(서양)음악학과에 영향을 받았으나 관련학과들은 실용적 과목개설로 나름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실용음악전공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커리큘럼분석을 통해 다양한 분야를 융합하는 시도들이 주목받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이제 음악 내로 한정하는 기존의 논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실용음악관련 교육 역시 다양한 차원에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에 커리큘럼의 범위는 보다 광범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보컬교육의 경우 재즈나 케이팝에 집중하는 반면 1980년대 이전의 국내 가수들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다. 소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제시되는 케이팝의 전사(前事)들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7] 더불어 다양한 음악전공에 대한 통합적 운영의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8] 부산예대의 경우 실용음악 학부내에 기악, 보컬, 창작, 국악전공을 개설하여 통합적 운영의 시도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로 상기사례를 통해 각 학과들이 음악기획, 콘텐츠개발 등 진로와 관련한 교육안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동대의 경우 진로코칭, 공연제작, 뮤직비지니스 등 학생들이 뮤지션을 넘어 기획자로서의 기획력 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부산예대의 경우 무대연기, 뮤지컬워크샵, 댄스 등의 과목을 통해 진로범위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최근 BTS 등 아이돌그룹의 성공으로 기획사들이 글로벌 전략에 집중하는 것처럼 각 학과들도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동대의 경우 학과목표에 글로벌 음악인을 명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이제 음악학과에서도 외국어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채택해야 할 필요가 있다.[9] 진로와 관련, 각 교육기관들은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통해 급변하는 사회흐름을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의 경우 무엇보다 융합형 과목개발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이나 기타방송관련학과들과 연계해 기획과 연관된 과목을 활성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타전공의 학생들과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음악에 한정되지 않는 보다 넓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이러한 수업을 통해 뮤지션으로의 진로뿐 아니라 공연기획자, 프로듀서, 운영자 등으로 폭을 확장할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의 취업률향상과 관련한 장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용음악과 연관된 자격증관련 과목개설도 생각해볼 수 있다.

사실상 부산의 4년제, 2년제 실용음악학과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신입생유치와 중도탈락률, 취업률재고임에 틀림없으며 관련자들은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특히 최근 41년의 역사를 지난 동부산대가 폐교되어 이에 따른 인구유출과 인근상권문제, 지역대학의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를 중심으로 산·학·연 등과 연계한 정책적 접근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각 대학들은 공공기관과 연계한 콘텐츠개

발, 참여프로그램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야한다.

이제 지역의 음악대학들은 학령인구문제, 경기침체, 코로나19 등 외부의 환경적 위기에서부터 학과경쟁력 강화, 융합형 커리큘럼도입, 직업교육확대 등 내부적 요인 까지 고민해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를 위해 각 교육 기관의 관계자들은 공론장에서 저마다의 당면한 문제들을 내려놓고 관련논의 등 다양한 방안들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해법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부산의 경우 이제 겨우 출발선상에 있는 듯 보인다. 이제 부산의 실용음악, 그 중심과 주변의 발전과 상생을 위한 근원적 성찰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Jeong-han Lee, "A Study on the Name of Music University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12 pp. 6119-6124, 2013.
- [2] Jung-sun Lee, "A Research on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Applied Music Education System in Korea Colleges and Universities", Sungkyunkwan University, 2010.
- [3]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Vol.46, pp 19-46, 2014.
- [4] Dong-A university.
<http://music.donga.ac.kr/music/10286/subview.do>
- [5] Busan art college
http://www.busanarts.ac.kr/page/contents/contents_View.php?TREE_NO=5055&DEPTH=3
- [6] Daedong college
http://music.daedong.ac.kr/homepage/ms/page/subLocation.do?menu_no=10150204
- [7] Tae-sen Cho, "Research on Vocalization for Korean Pop song: Case From The YongPhil Cho's A Lady out of Window",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0, No 10 pp. 3004-3010, 2009.
- [8] Hye-Seung Shin, "The Study of Sight-Singing and Ear-training Program for Applied Music-Major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1, No 10 pp. 3673-3679, 2010.
- [9] Jeong-hwan Seo, Renovated Theory of Applied Music, pp. 1-205, Sejong Publishers, 2016.

서 정 환(Jeong-Hwan Seo)

[정회원]



- 2004년 2월 : 부경대학교 경영학부 (경영학사)
- 2008년 2월 :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학과 (음악학석사)
- 2014년 8월 : 동아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문화학과 (음악문화학박사)
- 2013년 3월 ~ 2015년 2월 : 경주대학교 실용음악공연학과 조교수
- 2017년 8월 ~ 현재 : (재)부산문화회관 팀장
- 2020년 9월 ~ 현재 : 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경영컨설팅)

〈관심분야〉

실용음악, 예술경영, 극장경영, 대중문화